

Magazine

새벽종

2023 03·04 제7호

연대와 협력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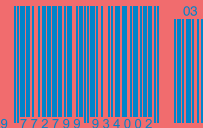
새벽종

2023 03+04 제7호



 새마을운동중앙회

www.saebyeok.com



ISSUE NO.7
ISSN 2799-9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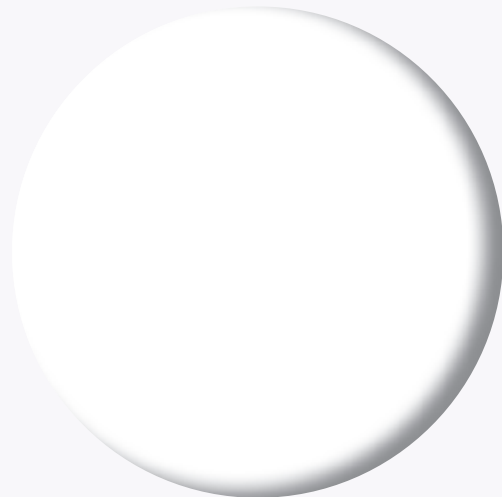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의 공기를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Prologue

눈앞에 들이닥친 무수히 많은 문제를 당장 히어로처럼 해결할 수 없다 해도
분명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은 곁에 함께 하는 든든한 이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같은 곳을 향해 발걸음을 맞추고 보듬어 가며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의 근원이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Contents

2023 03+04 제7호



06	어울림 새마을운동,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다
14	누림 찬란한 봄별이 내려앉다 - 경북 경주 여행
18	울림 연대와 협력은 새마을운동 부흥의 동력(動力) - 이준구 뉴시스 경기남부본부 편집국장
20	Interview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 MKYU 김미경 대표
24	새마을 아카이브 - 중앙·지방 행정부처가 생산한 기록물 편 - 새마을운동의 살아있는 전설 '하사용 지도자'

28	새마을 사람들 1 깊은 애정으로 살기 좋은 지금을 만들고 조직력을 더해 더 나은 미래를 이끈다 '2022 전국 시도·시군구 협의회 종합평가' - 시군구 최우수 새마을지도자전남여수시협의회
32	새마을 사람들 2 서로를 '식구'라 부르는 마을공동체 2022 우수 마을공동체 - 우수마을 충남 공주시 '엄지마을공동체'
36	대학새마을동아리 우리가 곧 대세동의 미래 - 제2대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회장단
40	지구촌새마을운동 캄보디아에서 꽃피는 새마을운동 -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현지 새마을교육
42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탄소발자국 줄이기 우리 모두 함께해요!

46	중앙회 소식
47	시·도 소식
50	현장은 지금
58	새마을 통통통

발행일

2023년 3월 25일

발행처

새마을운동중앙회

발행인

곽대훈

기획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

T. 031-620-2371~4

F. 031-620-2379

편집·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광고·구독·주소변경

T. 031-620-2373

magazine@saemaul.or.kr

본지에 게재된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매거진 <새벽종>을
휴대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agazine



Webzine

새마을운동 제창 제53주년 새마을운동,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 덕분이다. 새마을운동은 지난 1970년 4월 22일 제창 이후 현재까지 53년간 국가발전과 지역 공동체 활동을 이끌어오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가는 새마을운동의 연대와 협력, 그 사회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write. 홍보팀 illust. 버리

With



새마을운동, 연대와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말하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와 태풍과 산불 등 재난 현장에서 앞장서 활동한 새마을운동. 올해는 새마을운동 제창 제53주년을 맞아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의 새마을운동은 연대와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향상시켜 나가야 할까?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나부터, 이웃부터, 마을부터라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된 변화를 이끌어 왔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큰 역할을 펼쳐왔다. 최근 우리 사회 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방소멸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등장했다. 여기에 MZ세대가 등장하면서 기존 공동체 활동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더 붙어 함께하는 활동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을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도 평소

각자활동을 하다가 사회적 이슈나 필요에 따라 '느슨한 연대'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기후변화의 위기, 보건과 디지털 격차는 세계시민의 자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특별연설 (2023.1.20.)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우리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모두발언(2022.11.12.)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돌파해 나가는 힘도 연대와 협력이다. 전 세계는 지구적 위기에 힘을 합쳤고, 연대를 통한 다각적인 해법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있다. 새마을운동 역시 국내외의 시대적 위기와 변화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1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당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역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소통하며 시민 주도형 행사를 진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2

자치분권과 공익단체 활성화

정부는 지방자치분권화를 강화하면서 다양한 공익활동단체를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각 단체별 대내외적인 다양한 협력을 통해 공동의 비전을 설정하고 협력적 실천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민관 공적협치기구를 확대하고 강화하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각 단체별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실제 주민들의 일상적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보다 주안점을 두었다. 기존 주민자치위가 해당 소속단체 활동과 동질화되는 것을 방지한 것이다.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지자체의 시민참여예산은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역의 문제나 숙원사업을 위해 여러 단체가 함께 논의해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마을(만들기)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네트워크)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협의회 등도 각 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이뤄내고 있다.

비영리단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정부는 다양한 비영리단체지원을 위해 NPO지원센터를 공익

활동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과 시민사회 지원네트워킹과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단체설립 안내와 사업추진을 위한 회계, 역량강화 등 전문적인 교육과 정책적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비영리단체 지원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와 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공익활동 지원의 목적이 있다.

새마을운동, 다양한 변화 모색 필요

새마을운동은 민관협치의 대표적 사례이자 거버넌스의 실증적 사례다.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53년간 꾸준한 활동이 가능한 이유이다. 여기에는 전국 180만 명에 이르는 지도자와 회원들이 든든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서 새마을운동은 위기에 처해 있다. 역사적 이력이 과거의 운동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회원들의 활동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선입견이 더해지기도 한다. 여기에 회원감소와 봉사자들의 고령화도 문제다. 또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단체 속에서 일감 선택과 차별화된 단체의 위상을 찾아가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조직으로 가장 큰 봉사단체의 단체의

위상은 변함이 없다. 다만 회원들의 바람은 하고 있는 일들을 선입견 없이 봐주고 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이다.

다양한 연대와 협력 시도

새마을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조직 내 위기를 해결해가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 환경부와는 탄소중립 캠페인을 함께 펼쳤으며, 올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활동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새마을대청소, 하천가꾸기도 계획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과는 에너지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에 함께 참여하며 일제소 등행사를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와는 농어촌 폐비닐 수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재난재해 극복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MZ세대 청년새마을운동 시작

최근에는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로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만들어 내고자 대학새마을동아리 창립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6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59개소의 대학새마을동아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도교수협의회 영상 콘테스트,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을 지급하며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젊은 새마을운동을 펼치고, MZ세대 청년들을 새마을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사회적 가치 실현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연대와 협력’은 필연적 과제”라고 말한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새마을운동이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풀뿌리 운동임을 보여주고 함께하는 단체들을 통해 현장에서 살아있는 새마을의 모습을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노진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장은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하면 서로 상이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공동체발전과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해법을 찾아가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양한 방법의 활동참여는 새마을운동의 경험치를 높이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새마을운동만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



2

새마을지도자들은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 함께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등 대내외적인 다양한 협력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다시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것이다. 이에 개인과 마을은 물론 지자체와 기업, 정부 등 여러 방면으로 꾸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운동을 전개했으며, 공동체를 위해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을 실천해 왔다. 그간 새마을운동이 펼친 대표적인 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write. 왕보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의식 제고'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뉴딜 국회토론회 (21.2.23.)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림청 등과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림자원 순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 참여 방안을 모색했다. 이 토론회에는 중앙회 기획국 차장, (사)농어업정책포럼 이사장, 나무와에너지 대표, 녹색탄소연구소장, 산림청 산림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산림뉴딜 관련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도와 함께 '안전한바퀴' 캠페인 (23.3.7.)

경상남도새마을회는 지난 3월 7일 수로왕릉 일대에서 행정안전부·김해시와 함께 '민·관 합동 안전한바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경상남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에 속해 있는 안전 관련 민간단체들과 함께 진행했다. '안전한바퀴'는 도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 및 생활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과 순찰을 통해 발견한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개선해 나가는 활동이다.

다 함께 잘사는 '공동체 문화 조성'

경기 연천군 백학면협의회, 백학사랑 환경정화 운동(23.3.6.)

경기 연천군 백학면협의회(회장 최경희)는 지난 3월 6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1분기 특화사업으로 지역 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은 지역 내 취약가구를 방문해 도배, 장판, 창호 등 집안 곳곳을 정비하고 쓰레기를 수거했다.

충청북도새마을회, 도·공간 교류협력 확대

충청북도새마을회는 충청북도의 생산적 일손 돕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사1일손 자매결연을 하고 농가를 방문해 부족한 일손을 돕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의 어려움을 나누는 동시에 우리 농산물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됐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며 농촌 사랑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 사곡면새마을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23.2.24.)

충남 공주시 사곡면협의회(회장 백승안)와 부녀회(회장 안미혜)는 지난 2월 24일 공주시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하여 '사랑의 집 고쳐주기' 활동을 펼쳤다.

충북 단양군 영춘면, 봄철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23.3.7.)

충북 단양군 영춘면협의회(회장 이성준)와 부녀회(회장 이금자)는 지난 3월 7일 상리와 하리 일원에서 산불조심 예방 홍보 캠페인과 환경정화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 등 기관·단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객, 입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 활동으로 마련됐다. 또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남녘새마을지도자, 영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은 산불방지를 위한 환경정화활동도 진행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경기 파주시 외화산마을 (2021년 활동 최우수)

외화산 마을은 45가구 80여 명의 주민으로 이뤄진 작은 농촌 마을로 주민 80% 이상이 고령 어르신이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 인식이 부족했으며, 환경 문제, 문화적 낙후 문제뿐만 아니라 소통 역시 부족했다. 이에 꽃동산 만들기,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책이 있는 정류장 쉼터 조성, 벽화그리기 등의 공동체 활동을 전개하여 마을을 생기 있게 만들고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냈다.

대구 달서구 봉달마을 (2022년 활동 최우수)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통우회(통장모임), 복지관 등과 연대하여 폐건축자재가 쌓인 관내 공터를 재정비해 미니 꽃밭으로 만들었다. 또 EM(유용미생물군)비누, 천연 치약 만들기 등의 탄소중립 활동과 코로나19 유행 당시 주민들의 우울감을 달래기 위한 심리방역꽃바구니 만들기 등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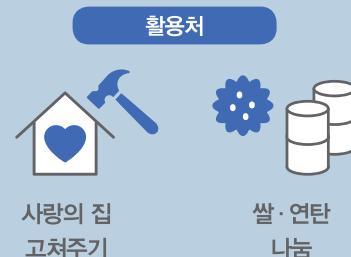
친환경 생활의 시작, '탄소중립 실천'

한국환경공단 · 해양환경공단과의 연대(20.12.28.)

바다에 버려진 폐그물, 부표 등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플라스틱은 바다 생물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에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과 연대하여 환경문제 및 폐기물 발생의 획기적인 저감 등을 위해 자원순환 실천사업, 바다 가꾸기 프로젝트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환경 친화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 교육과 실천 확산을 위한 사업, 자원순환분야 및 폐기물 적정처리 업무지원과 협력, 바다 가꾸기 프로젝트 업무지원 및 협력, 협력 분야 정책·기술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협력뿐만 아니라 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 캠페인, 해양쓰레기 재활용 협력 등을 추진했다.

경북 청도군새마을회 환경살리기 (21.9.10.)

경북 청도군새마을회 환경살리기(청도군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는 새마을지도자, 이장, 마을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 곳곳에 버려진 폐자원을 자원화하고, 자원순환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범지구적 환경살리기 새마을운동을 전개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 행사를 통해 지난 22년간 수거된 재활용품의 양은 16,000톤,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은 21억 원에 달하며, 매년 10여 가구 불우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쌀, 연탄 등 생필품 나눔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실현 위한 업무협약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통한 환경오염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충남 아산시 염치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폐비닐 및 농약병 20여 톤, 군산시 미성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영농폐기물 1톤을 수거하는 등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줄이기에 동참했다.

산림청과 전국 75만 그루 나무심기 (22.3.31.)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림청과 함께 '전국 75만 그루 나무심기'를 진행했다. 2021년 25만 그루, 2022년 75만 그루, 2023년 100만 그루 나무심기 3개년 중장기 계획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범국민 나무 심기 운동'을 펼치며 탄소중립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나무 심기는 총 1,551개소에서 전국 2만 6천여 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관목류, 교목류, 과실수 등 809,495그루를 심었다.



2022년 탄소중립을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단체와의 연대



찬란한 봄별이 내려왔다

경북 경주 여행

봄 하면 경주를 빼놓을 수 없다. 바람이 살랑일 때마다 분홍 꽃잎이 일렁이고 별이 내려앉은 곳마다 여린 봄이 피어난다. 천년고도에 설레는 봄이 찾아와 바라보는 곳곳마다 가장 찬란한 계절을 만들고 있다.

write. 편집실

느리게 천천히 바라보면 더 좋은 경주

학창 시절 방문했던 경주는 이곳저곳 걸음을 옮기기 바빴다. 어른이 되고 다시 경주를 방문했을 땐 그 누구보다 천천히 걸었다. 바삐 움직이지 않으니 비로소 경주가 보이는 듯했다.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어디를 둘러봐도 그 모든 곳이 경주였기 때문이다.

경주의 봄은 대릉원에서부터 시작된다. 고요한 고분의 능선 사이로 하얀 목련 나무가 꽃을 피우면 그 어느 때보다 단아한 멋을 느낄 수 있다. 대릉원 후문 건너편에 있는 노서동 고분 역시 봄날 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대릉원의 흰 목련 뒤를 잇는 것은 보문정의 벚꽃이다. 수줍은 꽃잎은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오가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다.

경주를 걷고 맛보고 싶다면 황리단길을 천천히 걸어보자. 커다란

고분과 기와지붕을 얹은 건물들 사이에 두고 좁다란 골목을 걷다 보면 과거로 시간 이동을 한 듯한 기분마저 든다. 골목 곳곳을 누비다 보면 커피에 빠진 첨성대, 빵 위에 새겨진 다보탑 같은 맛있는 경주를 발견하는 재미도 가득하다.

경주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이들에게 국립경주박물관을 추천한다. 수장고로 쓰던 건물을 최근 새롭게 단장해 박물관 속 도서관인 신라천년서고를 개관했기 때문이다. 내부의 멋스러운 석등이 경주의 멋을 뽐내고, 기둥, 보, 동자주, 서까래 등 전통의 단아함과 현대의 모던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힙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박물관의 전시도록과 신라 및 경주학 관련 도서들도 촘촘히 채워져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었던 한층 깊은 경주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



이곳만은 꼭!

경주시새마을회가 추천하는 경주 여행



삼릉 숲숲

이른 아침 빛 내림, 자옥한 안개, 설경 등 사시 사철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울창한 숲숲 끝에는 제8대 아달라 이사금, 제53대 신덕왕, 제54대 경명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삼릉이 있다.

📍 경주시 배동 산73-1



대릉원

12만 6,500m²의 대지 위에 23기의 신라시대 고분이 모여 있는 대릉원에는 천마총과 함께 흰 목련 나무가 인기다. 워낙 드넓어 숨바꼭질 하듯 고분 사이를 샅샅이 찾다 보면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한 능선 사이로 단아한 자태를 뽐내는 목련 나무를 만날 수 있다.

📍 경북 경주시 황남동 31-1



첨성대

동양 최고의 천문대인 첨성대는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첨성대를 만든 365개 내외의 돌은 1년의 날수를, 27단의 돌단은 27대 선덕여왕을, 꼭대기 정자석까지 합치면 29단과 30단이 되는 것은 음력 한 달의 날수를 상징한다.

📍 경북 경주시 인왕동 839-1



보문정

CNN에서 한국의 비경이라 소개된 보문정은 팔각 정자와 2개의 연못 주위로 빛나무, 단풍 나무 등이 심어져 어느 계절 하나 빼놓지 않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특히 봄이면 길게 늘어진 수양벚꽃을 볼 수 있어 벚꽃 명소로 손꼽힌다.

📍 경주시 신평동 150-1



동궁과 월지

경주 월성과 남산을 잇는 월정교는 통일신라시대에 지어진 교량이다. 조선시대에 유실된 것을 2018년 4월 국내 최대 규모의 목조 교량으로 복원했다. 주변에 벚꽃 길에 있어 낮에도 좋지만 야경이 수려하여 밤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찾는다.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274



신라천년서고

신라천년서고는 국내 최고 권위의 2022년 골든 스케일 베스트어워드 협회상을 받았다. 공간의 미학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전시도록, 신라 역사와 문화 관련 도서로 알차게 채워져 편안하게 눕독(누워서 책 읽기)하며 신라로의 과거 여행을 떠날 수 있다.

📍 경주시 일정로 186



경북 경주시새마을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주시새마을회장단은 손지익 회장을 비롯해 박정원 협의 회장, 정명숙 부녀회장, 장용준 직·공장회장, 조강식 문고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개 읍면동 협의회와 부녀회, 10개 읍면동 문고분회, 30명으로 구성된 경주시 직·공장이 활동하고 있으며, 기타 조직으로 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관내 활발한 새마을운동을 펼치기 위해 23개 읍면동에 새마을사무실과 집기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하시면서 느낀 보람은 무엇인가요?

매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소외이웃 및 취약계층 밀박찬 전달하기, 사랑의 떡국 나누기, 사랑의 연탄 나눔 등과 같은 공동체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는 요즘 시대에 지역 공동체의 부활과 개인이 아닌 우리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새마을운동을 보여 주위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함께 하려는 모습에 행복을 느낍니다.

경주시새마을회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무엇인가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형산강 주변 잡초 제거 및 쓰레기 줍기 등 환경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산강 일대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쓰레기를 치워 쾌적한 형산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7월에서 8월까지 문무대왕면 봉길해수욕장, 산내면 동창천 등 피서지에서 환경 안내소를 운영하며 피서지 내 쓰레기수거 등의 환경정화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주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기분 좋은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주시새마을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요?

2023년 1월 26일 경주시 감포에서 경주시장님과 새마을운동중앙회장님을 모시고 경상북도 시·군회장단 회의 및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모든 경북 시·군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행사를 주최하여 경주시새마을회의 위상을 높인 것은 물론 경주의 관광지인 감포를 널리 홍보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계획과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꾸준한 봉사를 실천하여 지역 발전에 노력하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자원모으기 경진대회, 식목일 나무심기 사업 등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사랑의 김장 담그기, 태극기 달기 및 나라사랑 캠페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익적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새마을운동의 위상을 높이는 경주시새마을회가 되겠습니다. 🌱

무수한 활동 내용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지난 여름 경주를 강타한 태풍 한남노가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듯 경주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주시새마을회 모든 구성원이 태풍으로 실의에 빠진 많은 수재민을 위해 진흙으로 뒤덮인 집청소와 가전제품 수리, 동네 환경 정비 등 수해복구에 앞장섰으며 누구보다 빠르게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했습니다. 저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희망과 삶의 의미를 갖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뒷줄 왼쪽부터) 장영준 직공장협의회장, 조강식 문고회장
(앞줄 왼쪽부터) 박정원 협의회장, 손지익 새마을회장, 정명숙 부녀회장

연대와 협력은 새마을운동 부흥의 동력(動力)



반세기가 훨씬 넘는 일이다. '1,000불 소득, 100억 불 수출'을 부르짖던 1970년대에 중학교를 다녔다. '근면', '자조', '협동'을 내걸고 '잘살아 보자'던 새마을운동은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교문에서부터 교실에 이르는 진입로를 선생님들과 함께 포장했다. 아침 일찍부터 교내는 물론 학교 앞 도로까지 드럼통을 잘라 만든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다녔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시멘트와 자갈을 비볐는지 53년 전 땀방울이 아직도 생생하다.

write. 이준구 뉴시스 경기남부본부 편집국장

1980년대 경기도와 시군의 새마을과장이라는 직책은 다들 고참 이어서 곧 군수나 국장으로 승진할 만큼 파위가 있었다. 1990년대 정신개혁운동으로 승화하면서 새마을과는 국민운동지원과로 이름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 영향력은 지속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새마을과나 국민운동지원과는 대부분 폐지에 이르렀고, 일부 시군도 새마을과 폐지와 예산축소 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경북 구미시의 새마을과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의 경우 민간협력관련 계단위 조직에 업무분장의 하나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뿐이 아니다. 최근 들어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간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현재 회원이거나 운동가로 활동하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새마을의 개념조차도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급속한 산업화는 농촌인구를 대폭 감소시켰다.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점차 운동의 동력을 잃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대신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단체 등 NPO(비영리민간단체)가 대폭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무려 1만 5,000개가 넘는다.

이에 따라 이제 새마을회도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2의 부흥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적이고도 세분된 다양한 시민단체와의 협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경기 광명시가 올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만든 것과 수원시가 10여 년 전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미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지원하는 시민들의 시장 참여 확대와 협치 분위기를 만든 것이 좋은 사례다.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운동중앙회나 시도새마을회는 중앙부처나 지자체, 민간단체들과의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는 하다. 환경공단과의 연대를 통한 각종 정화활동에는 연간 수십만 명의 회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경기도새마을회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로부터 매년 1억 2,785만 원을 지원받아 '참 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제2의 도약을 이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나 지자체가 최근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비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시민참여예산 역시 다양한 단체와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새마을로서는 기회일 수도 있다. 53년 역사를 가진 새마을 조직은 연대와 협력 만큼은 그동안의 역량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와 전문화된 시민단체들과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의 인식 전환과 이미지 쇄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더욱 연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13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지난 시절 경제위기를 극복하게 한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일어나야 할 때"라고 밝혔듯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한다. 손수레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연대와 협력이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들 입장에서 새마을과 손잡는 것은 해 볼 만한 일이다. ☺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MKYU 김미경 대표

궁금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는 이들의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김미경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확신은 세 가지 키워드였다. 자신에 대한 '사랑', 끊임없는 '공부', 다양한 세계와의 '연결'.

write. 장희주 photo. 김병구

Q – ‘열정’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대표님을 멈추지 않게 하는 열정의 원천이 궁금해요.

원체 부지런한 면도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 래요. 제발 좀 그만하고 쉬면서 살라고. 그런데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더 피곤하지 않나요? 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내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는 게 재미있어요. 그 성장이 서른 살의 나 와 지금의 나를 다르게 만들었죠. 70대가 되면 또 달라지겠죠.

Q – 열정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라 고 이야기해요. 자존감과 열정은 연결돼 있거든요. 자존감을 하 루를 '나'로 시작하느냐, '타인'으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 만들 어져요. 다른 사람이 만든 하루가 아니라, 내가 만든 하루여야 해 요. 그래야 저절로 자존감이 올라가고 열정이 생겨나죠.

Q – 요즘은 하루에 5시간씩 영어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고 들었 어요.

50대는 무얼 하기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다 컸고 생활도 예전과 비교해 더 나아졌죠.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게 됐어 요.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나를 위한 목표를 세우는 데 소홀 해져요. 어떤 목표도 세우지 않고 계획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나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해야 해요.

영어 공부는 올해 제가 세운 목표입니다. 하루에 5시간씩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영어로 강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Q – 트렌드·재테크·자기계발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MKYU의 설립 목적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은 코로나19 전후로 많은 게 변화했어요. 오프라인으로 가 능했던 일이 모두 온라인화되었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모 르겠지만 이미 세상은 디지털화됐다는 데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이처럼 사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개인이 따라잡기에 힘들 정도죠. '배움'이 없다면 뒤처질 거예요. 계속해서 학습하지 않으면 세상과 단절될 겁니 다. 여기에서 착안했죠. 세상을 보다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는 곳이 MKYU입니다.

Q – MKYU가 사회에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이 라면, 대표님께서 발간하는 책은 '공감'과 '위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한 후 10년을 '아내'와 '엄마'로 살았어요. 내가 선택한 삶이 지만 내 자신 '김미경'은 부재했죠. 저는 김미경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지 연구했어요. 40대 때는 30대의 '치열함'을, 50대인 지금은 40대의 '시작'을 알 려주기 위해 책을 썼어요. 40대 때는 몰랐던 사실을 50대가 된





리더십의 기본은 ‘변화’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혜를 습득하는 일에
 게을러져서는 안 되죠.

1 김미경 대표는 자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열정적일 수 있는 이유를 자신에 대한 ‘사랑’, 끊임없는 ‘공부’, 다양한 세계와의 ‘연결’이라고 설명했다.

2 김미경 대표는 오래전부터 사회를 촘촘히 연결해주고 소속감으로 안정감을 준 곳이 새마을운동이라고 말한다.

지금에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지나고 보니 인생의 정점은 40대에 시작되더라고요. 이를 담은 책이 <김미경의 마흔 수업>입니다. 40대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모두 조금해 해요. 그런데 40대라는 나이는요, 어차피 반 밖에 이루지 못하는 시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노후를 40대부터 준비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돼요. 너무 일찍 준비하는 거예요. 40대는 100세를 살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첫 번째 신년이에요. 나머지는 50대부터 시작해도 돼요. 아직까지도 노후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남은 나이인 거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Q – 새마을운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든 사람한테도 평생 공부 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면 지금과는 다르게 살 수 없어요. 리더십의 기본은 ‘변화’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혜를 습득하는 일에 게을러져서는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커뮤니티가 필요한 이유이죠. MKYU는 전국적으로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서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여기에서 또 배움을 얻고 있어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뭔가를 함께 하자면 엄청 재미있게 할 수도 있어요.

Q – 새마을운동은 어른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자,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한 새마을운동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변화를 맞이하려면 열려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공부할 때는 20-30대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이야기하며 공부했어요. 하지만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요즘은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유튜브가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예요. 여러 방면의 사람이 모여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이죠. 결국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커뮤니티는 새마을운동이 아닐까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새마을운동을 하며 소속감을 가지고, 정서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했잖아요. 우리 사회를 싹틔움처럼 연결해주고,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바로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이라는 따뜻한 커뮤니티 안에서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연결되어 살아가길 바랍니다. 🌱



마을 주민의 자립정신과 실천의지를 독려한 새마을운동

중앙·지방 행정부처가 생산한 기록물 편

한국 농업문제 전문가이자 전 아시아재단 대표인 에드워드 리드(Edward Reed) 박사는 “새마을운동은 공무원-농민의 힘 관계를 농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크게 변화시켰다”라고 말한 바 있다. 새마을운동은 ‘중앙→도→시군→읍/면/동’으로 이어지는 각 행정 단위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그 운동의 주체는 마을 주민이었다. 정부는 지원자의 입장에서 주민의 활동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자립정신과 실천의지를 독려하는 정책을 펼쳤다.

‘우수마을 우선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맞춤형 지원을 전개했는데, 충청남도의 새마을 지원사업을 보면 기초마을에는 환경개선을 위한 시멘트와 철근을 지원하고, 자조마을에는 농로개설과 지붕개량 지원, 자립마을에는 노임사업·생산기반사업·문화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관계 부처들이 참여하는 협력 기구를 조직하여 정책을 마련했고, 지방정부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마을에 전달했다. 읍면 단위 공무원들은 주민의 지도자인 이장·새마을지도자와 긴밀히 소통하여 새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된 ‘잘살기 운동’이다. 활동은 문서와, 슬라이드, 녹음테이프, 영화필름으로 제작됐다. 특히 성공적인 농촌 부흥의 원형을 보여주는 기록유산으로써 중요한史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6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2023년 ‘새마을 아카이브’ 코너에서는 한국 농촌 근대화의 실록인 새마을운동기록물을 주제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가치와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 추진현황
1973년 | 27.5×19.8 | 충청남도 | 유네스코기록



事業別 計劃 및 進捗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 새마을운동 추진	2. 새마을운동 추진	3. 새마을운동 추진	4. 새마을운동 추진	5. 새마을운동 추진	6. 새마을운동 추진	7. 새마을운동 추진	8. 새마을운동 추진	9. 새마을운동 추진	10. 새마을운동 추진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6,000,000	7,000,000	8,000,000	9,000,000	10,000,000



특별지원사업추진관리지침
1977년 | 크기 미상 | 경기 용인군 남사면 통삼1리
동막마을 | 국가지정·유네스코기록



- 1 농업 기계화
- 2 메탄가스 시설
- 3 농업용수 시설
- 4 간이 급수 시설
- 5 전기·통신

새마을운동, 살아있는 전설

하사용 지도자



하사용 지도자
인터뷰 영상



1970년대 새마을운동 추진 당시 각 분야에서 활동하신 새마을지도자들의 생생한 활약상을 통해 그들의 리더십과 당시 마을 단위별 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하사용 지도자에게는 허투루 사용되는 물건이 하나 없다. 철 지난 달력이나 이면지 등을 활용해 편지봉투를 직접 만들어 사용 중이라며, **하사용지도자표 편지봉투**를 선물로 주셨다.

한국의 '새마을운동 성공사례 1호'인 하사용 지도자. 1970년대 당시 전국의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준 하사용 지도자를 만나 최근 근황을 들어봤다.

“하면 된다! 이거여.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여. 정신을 바꾸지 않고는 희망이 없는거”라고 말하는 하사용 지도자(94세).

하사용 씨는 1930년 4월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정중리에서 태어났다. 가난했던 그는 수업료를 못내 초등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당하고 고물수집, 엿장사, 나무장사, 채소장사 등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했다. 채소장사를 하면서 채소농사를 짓는 화교(華僑)들의 수입이 높다는 것을 보게 된 그는 부농(富農)의 꿈을 꾸게 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소 같은 고소득 농사를 짓지 않는지 의아했지만 그로서는 농사를 지을 땅이 한 평도 없었다.

6·25전쟁이 나자 그는 강원 양구지구 전투에 참전을 했다가 폐결핵으로 의병 제대를 했다. 제대 후 오창면 상평리의 신경복 씨와 냉수 한 그릇 떠놓고 결혼식을 올렸다. 움막집과 흙청 없는 이불 한 채가 신혼부부의 살림 전부였다.

채소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빌리려 해봤지만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내 몰래 집을 나와 걸식을 해가며 춘천의 부잣집에서 3년간 머슴살이를 하고, 새경 쌀 열다섯 가마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957년에 쌀 열다섯 가마로 밭 270평을 구입했다. 그 밭 한 칸에 두 평 남짓한 움막을 지었다. 처음 가져보는 내 땅과 집이

었다. 미친 듯이 일만 했다.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성공할 수 없었다. 밭에 채소를 심은 후 콩기름을 바른 종이를 씌워서 보온을 해주었다. 국내 최초였다.

이는 훗날 최초의 비닐하우스 원예작물 재배로도 이어졌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그는 남들보다 채소를 일찍 수확할 수 있었고, 일반 농사보다 열 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땅을 더 사기 위해 1원도 헛되이 쓰지 않았다. 저축으로 매년 땅을 늘렸다. 또다시 결핵이 찾아왔지만 그는 다시 한 번 이겨냈다. 1970년 11월 11일 전국 농어민 소득증대 경진대회장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전국 1등 농민'이 됐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려 했다. 1,000만 원이면 당시 20,000평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러나 그는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에 이를 받지 않았다.

그는 비닐하우스 시설재배의 일인자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조기재배, 축성재배, 보온시설재배 등 시설재배 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했고, 곧 입소문이 퍼져나갔다. 멀리서 개인 혹은 단체 단위로 견학 겸 실습을 하러오는 농민들이 급증했다. 이때부터 전국 곳곳에서 비닐하우스를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하사용 지도자는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3,500회 이상 강의를 했다. 국내뿐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몽골 등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려는 이들이 대상이었다. 그의 일대기는 2007년 중국에서 소설로 출간돼 중국 전역의 농촌지도자에게 배포되기도 했다. ↗

깊은 애정으로 살기 좋은 지금을 만들고 조직력을 더해 더 나은 미래를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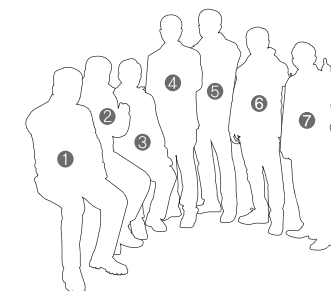
2022 전국 시도·시군구협의회 종합평가

시군구 최우수 새마을지도자전남여수시협의회



새마을지도자전남여수시협의회는 전국 228개 시도·시군구 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에서 지난 2022년의 성과를 인정받아 시군구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국의 모든 새마을지도자가 봉사에 진심이겠지만, 이들의 활동이 수상으로까지 이어진 데에는 마을에 대한 깊은 애정은 물론 선배들의 오랜 노하우와 후배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서로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write. 왕보영 photo. 김병구



(왼쪽부터) 이영진 소라면협의회장, 박수석 소라면협의회 부회장, 전광조 전동협의회장, 정봉권 중앙동협의회장, 이기전 여수시협의회장, 전진한 중앙동협의회 부회장, 유방열 한려동협의회장

바다만큼이나 깊은 애정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것은 처음 마주한 풍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봤느냐에 따라 각자 느끼는 도시의 이미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여수에 발을 내딛자마자 느낀 것은 '청량하다'였다. 도시 자체가 주는 이미지도 한뫼 했겠지만, 눈앞의 풍경을 비롯해 시민이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택시 승강장이나 버스정류장 등에 전단지나 지저분한 스티커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머무르고 싶은 버스 정류장 만들기 사업은 지난 2012년 시작된 활동입니다. 당시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려서 수많은 관광객이 여수를 찾았거든요. 관광객에게 여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 우리 새마을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다 생각해낸 아이디어였습니다.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할 텐데, 지저분하면 의자에 앉는 것조차 꺼려지잖아요. 지금까지 이어져 협의회에서는 분기에 한 번, 읍면동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 있고요, 한 번 할 때 2km 정도를 걸으며 버스정류장 10~15개 소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기전 여수시협의회장이 특화 사업 중 하나인 머무르고 싶은 버스 정류장 만들기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여수시협의회는 새마을운동의 여러 사업 중에서도 탄소중립에 진심이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마을이 바다와 인접하다 보니 자연에 그만큼 눈길이 가는 까닭이다. 새마을 줍깅데이는 물론 매월 바다 청소를 통해 여수의 바다를 알뜰살뜰 살핀다.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었어요.
그러다 보니 회원들 간 화합이 좋은 것은 당연하고 단체가 목표한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매월 바다 청결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한번 작업할 때마다 3~5톤 정도에 달하는 쓰레기를 줍고 날라요. 특히 태풍이나 장마 이후엔 더 하죠. 줍는 것보다 주운 쓰레기를 물으로 가지고 나오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엔 냉장고를 주운 적도 있어요. 이게 왜 바다에 있을까 싶은 물건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이영진 소리면협의회장이 말을 보탰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생물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하천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지도자 20여 명과 함께 삼일동 상암천에서 미꾸라지 방류와 하천정화활동을 펼쳤으며, 울촌면 연화천 일대에 철쭉 1,200원 그루를 심기도 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여수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1회 열린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에서 새마을협의회 지도자들이 동별로 주도적으로 나서 1등부터 3등까지 휩쓸었다.

여수시새마을회를 이끄는 힘 ‘조직력’

조직력은 넘지 못할 같은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때론 위기를

극복하게 하며, 팀을 하나로 만들어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시킨다. 여수시협의회는 27개 읍면동에 40대부터 80대까지 아우르는 약 502명의 지도자가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지난 세월 켜켜이 쌓인 노하우를 배우고 따라올 수 있어요. 특히 우리는 봉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있지만 우리는 봉사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었어요. 그러다 보니 회원들 간 화합이 좋은 것은 당연하고 단체가 목표한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조직은 그렇게 이끌어 가야 해요.”

이기전 회장은 여수시협의회 의 자랑스런 단연 ‘조직력’이라며 이 같이 말을 덧붙였다.

이러한 탄탄한 조직력 덕분에 평소 타지역의 모범 사례로 손꼽혀 교류를 위한 러브콜도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교류에 응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보여주기 위한 교류가 아니라 진짜 배우고 느끼는 교류를 지향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책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2018년부터

교류를 이어온 청도군협의회와 오랜만에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4년째 교류를 이어온 두 단체는 지역을 오가며 우수한 새마을운동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권하는 등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있다.

또한 지역 새마을부녀회와도 끈끈한 연대를 통해 천일염 사업이나 미역 다시마, 새우젓 판매 등 공동 활동을 전개하여 봉사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소외 이웃들에게 그때그때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도 하고, 몸으로 함께 뛰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 이 아닌 미래를 고민하는 새마을운동

유방열 한려동협의회장은 “봉사하다 보면 마음이 즐거워져서 안 늙어요. 젊었을 때 고생 꽤 했지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라며 가보처럼 아끼는 흑백 사진을 꺼내 보였다. 그는 새마을운동의 산증인이나 마찬가지다. 사진엔 젊은 시절 그가 있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무렵, 그는 이십 대 건장한 청년이었다. 맨손으로 갱이질하며 마을 안길을 넓히고 결혼 예물을 기부해 다리를 놓는 데 일조했다. 것처럼 과거 이들의 희생과 열정이 없었더라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여수시협의회는 고민이 많다. 어느 곳이나 그렇겠지만 고령화가 문제다. 선배들의 새마을정신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젊은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도자 확보를 떠나서 현상 유지 자체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모두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럼에도 좌절하는 법이 없다. 전광조 전동협의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봉사 활동을 알리고 소통하며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의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새마을운동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존재 이유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다. 또 지역의 청년 봉사대를 육성하여 그들이 훗날 자연스럽게 새마을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계획 중에 있다.

여수시협의회에서 막내를 자처하고 있다는 중앙동협의회장 정봉권 씨 역시 새마을협의회에 대한 애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남다르다.

“새마을운동을 몸으로 경험해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저 역시 여러 봉사 단체를 경험했지만 진짜 봉사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새마을운동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저희 중앙동의 경우, 우리 동만의 특화된 봉사 활동을 기획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매년 고추장이나 김치를 담가 이웃에게 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은 30~40대에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접근성이 쉬워지면 선배들이 잘 쌓아놓은 업적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젊은 지도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도자들 누구 하나 대충인 법이 없다. 그들의 애정이 곳곳에 차고 넘친다는 것을 장식장에 빼곡하게 늘어진 각종 트로피와 상장이 증명해준다. 햇빛에 반짝이는 윤슬만큼이나 빛나는 그들의 열정과 관심으로 더 나은 내일로 흘러갈 여수시협의회가 기대된다. ☺



1,2
머무르고 싶은 버스 정류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버스 정류장을 청소 중인 (좌)이영진 소리면협의회장, (우)이기전 여수시협의회장

3
바다 청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수시새마을회

서로를 '식구'라 부르는 마을공동체

「2022 우수 마을공동체 경진대회」

우수마을 충남 공주시 '엄지마을공동체'

충남 공주시 의당면 요룡1리 마을은 37가구, 주민 71명이 전 부인 작은 마을이다.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은 '엄지' 마을이다. 과거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마을을 의미하던 엄지는 최근 공동체의 힘으로 '최고'라는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식구 같은 이웃은 어떤 모습인지, 모두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이곳 엄지마을을 통해 알 수 있었다.

write. 왕보영 photo. 김하람



마을을 움직이는 힘, 공동체

고요한가 싶은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자 주민들이 분주하게 오간다. 오늘은 새로 지은 마을회관 앞에 보도블록을 깔기로 한 날이다. 공주문예회관에서 공사 후 버려질 예정이었던 보도블록을 이른 아침부터 수거해 마을로 운반했다. 포클레인으로 땅을 평평하게 다지고, 트럭에 싣고 온 보도블록을 한쪽에 와르르 쏟아 마을 남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열 맞춰 하나하나 깔기 시작한다.

마을 정자 옆 새로 만든 분리수거장에서도 폐지와 각종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하느라 바빠 움직인다. 마을 주민들의 나이가 많다 보니, 운동 삼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낱자를 지정해 함께 하고 있다. 순식간에 가득 쌓인 재활용품은 트럭에 실어 고물상에 가져가 팔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다시 마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다.

과거 새마을지도자였던 양근승 이장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일을 추진할 때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다. 어떤 일이든 마을 주민이 동의하고 이해해야 탈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을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다 보니 누구 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자도

없을뿐더러 모두의 관심사가 마을 공동체를 향해 있다. 그래서일까. 이야기하는 내내 마을에 대한 양근승 이장의 애정이 뚝뚝 묻어났다.

“공동체는 사회를 이루는 기초조직인 마을에서 이뤄져야 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이뤄져야 관심을 두고 지속할 수 있거든요. 내 집 앞에 꽃씨를 뿌려 가꾸는 것과 시내 로터리에 꽃씨를 뿌리는 것은 다르잖아요. 집 앞의 꽃은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있는데, 내가 매일 들여다볼 수 없는 곳에 심은 꽃은 그럴 수 없으니 일회성으로 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거창한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마을, 매일 부

1
마을 주민 모두가 분리수거에 동참하고 있다.

2
마을 웃음치료 수업에서 만든 내가 꿈꾸는 엄지마을을 발표하고 있는 손경인 요룡1리 부녀회장

대끼는 주민들과 공동의식을 나눠야 해요. 마을에서 시작된 공동체가 읍면동으로, 나아가 전국으로 뻗어나가면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 믿어요.”

작은 엄지가 최고의 엄지가 되기까지

주민 대부분의 고령화로 활기 없던 마을이 변화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2년 충남(시,군) 희망마을 발전계획 경진대회에 선정된 이후부터다.

“마을을 둘러보면 경치가 참 좋아요. 빼어난 관광 자원과 썩고사라는 마을의 전통도 있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공주 의당 집터다 지기 문화도 있어요. 다들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 방치된 무궁무진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면 꽤 괜찮은 관광자원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양근승 이장을 비롯해 새마을회, 부녀회, 노인회, 개발위원회, 청년회, 반장회, 추진위원회, 마을 기업 등으로 이뤄진 마을공동체는 하나가 되어 마을을 살살이 탐색하고 기록했다. 굴과 바위, 나무에 이름을 지어 이야기를 덧붙이고, 보물 같은 관광자원을 보기 쉽게 주변 학교 학생들과 지도로 그렸다.

“저수지 근처에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이름을 논개 소나무라 붙였어요. 한난 조선송인 적송이고, 다른 한난 일제 강점기 때 들어온 외송이에요. 작은 적송이 마치 논개처럼 두 팔 벌려 제 몸집보다 큰 외송을 끌어안고 저수지로 몸을 던지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또 쾌변 바위는 큰 바위 두 개 사이에 작은 바위가 붙어 있는 모습인데, 마치 아기 공동이에 붙은 똥처럼 생겼다 해서 지은 이름이구요.”

양근승 이장이 마을의 명물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데 그 이름이 어찌나 찰떡같은지 감탄이 절로 나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관광자원발굴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직접 운영하는 체험 농가에 마을 어르신들을 일일 교사로 모시기도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며 한사코 거절하던 어르신들을 끝까지 설득해 우물 앞에서 했던 다듬이질과 밤묵 쑤기 등을 선보였다. 전통문화를 들을 기회도, 볼 기회도 흔치 않은 도시 아이들에게 엄지마을 어르신이 살아 움직이는 전통 그 자체가 된 셈이다.

“처음엔 고사했던 어르신들도 지금은 즐거워하세요. 이곳에선 아이들 구경이 어려우니,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이거든요. 그리고 평생 하던 일이 누군가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이나 했었어요? 올해는 어르신들과 인형극을 연습해서 옆 마을과 함께 완성한 도깨비 권역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선보이려고 계획 중입니다.”

양 이장은 지난 몇 년간 아직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마을을 알리려는 방송사들의 방문도 만류했지만, 이제 탄탄한 기초공사를 마치고 그간 준비한 것들을 보여줘도 관심을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한다. 본래 있었던 자연과 문화, 역사에 리더십을 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더 해 놀라운 모습으로 발전한 마을이 빛을 발할 때가 된 것이다.



3



4

3 새로 지은 마을회관 앞 보도블록을 깔고 있는 마을 주민들

4 매일 새마을부녀회에서 준비한 점심을 함께 먹으며 정을 돈독히 쌓는다.

5 마을 어르신들이 각자 만든 엄지마을을 뽐내며 웃고 있다.



5

매일같이 안부를 나누고 한술밥을 먹으며 마을을 위해 힘쓰는 엄지마을 주민들은 서로를 ‘가족’, ‘식구’라 부른다.

‘식구’라는 의미

가족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맞이하는 작은 사회인 동시에 개인이 태어나 살아가다 마감하는 종착지이기도 하다. ‘일 년에 몇 번 못 보는 가족보다 매일 보는 이웃이 낫다’라는 말이 있듯 요즘의 가족은 과거와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지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매일같이 안부를 나누고 한술밥을 먹으며 마을을 위해 힘쓰는 엄지마을 주민들은 서로를 ‘가족’, ‘식구’라 부른다. 오늘 역시 마을회관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매일 같이 식사해요. 여럿이 먹으니까 맛있고 재미있잖아요, 집에서 혼자 있으면 대충 먹게 되고 심심하거든요. 부족한 게 있다 싶으면 각자 집에서 퍼다 나르느라 비싸요. 얼마 전엔 쌀이 거의 다 떨어졌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쌀독에 쌀이 가득 찼어요. 다들 집에서 가져다 놓은 거죠.”

부녀회장인 동시에 마을의 막내인 손경인 씨가 이야기했다. 부녀회 두세 명이 부엌에서 마을 자량을 늘어놓으면서 툭툭툭툭 손놀림 몇 번에 마법처럼 어묵탕, 제육볶음, 짜장에 잡채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푸짐한 식사를 완성했다.

식사를 함께한다고 해서 모두가 식구는 아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집을 제집 드나들 듯 수시로 둘러 안부를 묻고, 이불 빨래 같은 힘에 부치는 것들을 새마을회에서 내 일처럼 도맡아 한다. 또 ‘서로가 칭찬하는 마을’이라는 슬로건답게 작은 일에도 넘치는 칭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할 줄 알며 또 감사할 줄 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주민과 함께하는 생명운동 엄지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100%에 달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으며, 2022 우수 마을공동체 경진대회 수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양근승 이장은 “남들에겐 사업일지 몰라도 우리에게엔 일상이에요.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이웃 주민이고 삶의 공동체죠.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마을이 지속성을 갖고 유지되는 것 같아요. 또 갈등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모두의 행복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요?”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내가 먼저인 요즘 시대에, 공주 엄지마을의 이야기는 잊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나아가야 할 ‘함께’라는 가치였다. ☺

우리가 곧 새마을의 미래

제2대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회장단

지난 2월 27일, 2023년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정기총회가 대전 코레일 사군자실에서 열렸다. 총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회칙 개정, 2023년 사업계획안 의결과 함께 임원 선거가 실시됐다. 총 45명의 각 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장들이 뜻을 모아 선출한 제2대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을 만나 그들이 그려가고 싶은 2023년도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의 미래에 대해 들어보았다.

write. 신지선 photo. 이민희



새마을동아리에 참여하면서
학문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닌
전국 대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활동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장 전치무(영남대학교 3학년)

먼저 회장단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언제부터 새마을동아리를 시작했나요? 참여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박치무 대학새마을동아리는 2022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전공이 새마을국제학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연스럽게 새마을운동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새마을동아리에 참여하면서부터는 학문으로만 배웠던 새마을운동에서 벗어나 전국 대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활동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이론을 배우는 곳이었다면 새마을운동중앙회나 지구대는 실천하는 곳이었으니까요.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장이 되니 앞으로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큼니다.

신유빈 저도 2022년 6월 학교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지도교수님의 추천으로 새마을동아리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아무래도 지역사회 발전과 연관이 깊잖아요? 저는 원래부터도 의정부에서 지역 봉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새마을동아리에 참여하게 되면서 관련 활동도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들도 만날 수 있어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엄태훈 학교 학생회장을 맡다 보니 자연스럽게 봉사대 대표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농활도 가고 학교 조리실을 이용하여 김치나 빵을 만들어 나누는 등의 많은 봉사 활동을 했죠. 젊은 청년들이 힘을 합쳐 사업을 진행하니까 즐겁기도 하고 보람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부회장이 되었으니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MZ세대인 여러분들에게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정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전치무 솔직히 어렸을 때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억이 '새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새마을운동을 해본 것도 아니고 이미 새마을운동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후였으니까요. 그러다 새마을조끼를 입고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계시는 새마을회원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긍정적인 느낌이 들더군요. 저도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신유빈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면 옛날 할아버지 세대, 옛날 시대의 유물이라는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이미 대학새마을동아리를 통해 MZ세대까지 확장하고 있잖아요? 요즘 패션이나 트렌드를 보면 뉴트로가 유행인데요. 새마을운동도 다시 유행시키면 뉴트로 문화 중 하나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으로 대표되는 새마을정신 아시죠? 새 시대에 필요한 새마을정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치무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학교도 자주 가지 못하고



대학새마을동아리 부회장 **신유빈**(신한대학교 3학년)

친구들과 교류도 적어지다 보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새마을정신의 협동이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힘을 합쳐서 시대의 고민이나 문제점 등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유빈 저는 창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과거의 새마을정신을 떠나서 좀 더 새로운 발견, 새로운 목표 지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엄태훈 단합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만나는 매체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렇수록 서로 많이 보고 단합이 잘 돼야 각종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전국새마을동아리연합회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실 계획이세요?

전치무 제2대 회장이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출마하면서 '지역구별 활동 활성화', '전국 새마을 활성화', '세계로 나아가는 새마을동아리' 등 많은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공약들은 단순히 개인을 넘어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해 내놓은 약속들입니다. 물론 학교 내에서 새마을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올해는 인근 대학이라든지 지역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좋은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회장님들과 함께 우리 회장단이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해외교류에도 역점을 두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새마을 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유엔에서도 새마을운동은 개발도상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개발 모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훌륭한 자산인 새마을운동을 세계에 알리고 실천하는 길을 열고 싶습니다.

엄태훈 학교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교가 연대해서 다 같이 운영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큰 단체가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전치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는 함께 하면 좋을 활동들을 많이 주최하도록 노력할 거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유빈 지금보다 많이 발전하는 대학새마을동아리가 되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있어요. 회장님을 도와서 밑바탕을 만들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10년 후에는 대한민국 대표 대학생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엄태훈 대학새마을동아리는 봉사만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봉사뿐만 아니라 대외활동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어요.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학새마을동아리 부회장 **엄태훈**(동주대학교 3학년)

**새 세대, 새 얼굴이 이끌어가는
젊고 희망찬 새마을운동**

2023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정기총회 열려



2022년 5월 발대식을 가진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는 2022년 기준 6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59개 대학에 동아리를 구성하며 몸집을 키웠다. 또한 대학새마을동아리 자체 활동뿐 아니라 시도, 시군구새마을회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2023년을 맞아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는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2023년 사업계획안, 회칙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정기총회를 열었다. 동아리연합회장은 개회를 선언하고 발대식을 비롯하여 홍보 영상 콘테스트 시상, 대학새마을동아리 교육, 지도교수 워크숍, 장학 사업, 연말 평가대회 등 굵직굵직한 추진실적을 보고했다. 이어 대학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체 및 탄소중립사회 조성을 위한 국내 봉사, 새마을운동 세계적 확산을 위해 펼칠 해외 봉사, 대학새마을동아리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한 2023년 주요 사업 계획안도 의결했다.

회칙 개정은 총회 개최 기준 완화와 운영위원 기능 강화와 활성화에 관련된 것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이날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제2대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였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회장단 선출을 위해 입후보자 신청을 받았고 후보자들은 참석한 대학새마을동아리 대표 45인 앞에서 소견을 밝혔다. 비밀투표로 실시된 선거에서는 영남대학교 전치무 학생이 회장으로, 신한대학교 신유빈 학생과 동주대학교 엄태훈 학생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선출된 회장단들은 "대학새마을동아리에 기대하는 만큼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활동, 함께 소통하는 동아리, 앞으로 나아가는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

캄보디아에서 꽃피는 새마을운동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현지 새마을교육

캄보디아의 경제발전은 여러모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단계를 거치고 있다. 전쟁의 소용돌이를 겪었으며, 새마을운동을 통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가 그러하였 듯 그 발자취가 동일하다. 특히 캄보디아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본보기 삼아, 농촌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며 캄보디아의 경제·사회 발전을 꾀하고 있다.

write. 장희주



참된 새마을정신을 전파하다

1970년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하게 한 새마을운동.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새마을운동이 황무지 같던 캄보디아에 뿌리내려 꿈과 희망을 싹틔우고 있다.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은 총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느 새마을운동처럼 마을의 생활 환경 개선을 시작으로,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립 교육까지 점차 영역을 넓혀나갔다. 캄보디아는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 농업의 GDP 비중이 (2018년 기준) 23.5%나 되며 농업 종사인구도 전체 인구(1,625만 명)의 27%에 달하는 438만 명에 이른다. 농지는 좋은 토질에도 불구하고, 건기에는 심각한 물 부족에, 우기에는 위협적인 강우량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논의 관개면적은 약 20%정도로, 대부분의 농민들은 자연 강우에 의존하여 1모작 벼농사를 짓고 있었다.

인접 국가들이 경제발전예 따라 농장의 대규모화,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캄보디아에서는 거의가 자급적 소규모 영세농가로, 대부분이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자급적 농업을 경영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으로 우물·수문·진입로 설치를 비롯해, 가축은행·주택개량 사업 등이 시작됐다. 걸어 다니기 힘들었던 진입로를 포장하고, 농수로 주변에 나무를 심어 정비했다. 그리고 낡은 집을 고쳐 보다 안전한 생활을 가능케 하고, 우물을 파서 먹을 물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 환경이 변하자 마을 주민의 생활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먼저 진입로와 농수로가 갖춰지자 2모작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수문이 설치되자 우기에 내린 비를 모아 농사에 사용할 수 있어 2모작이 가능해졌다. 이는 생산량과 소득의 증대라는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신감'을 불어넣는 데도 한몫했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사업에 참여해 마을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마을정신의 참된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새마을운동의 아름다운 동행

새마을운동은 단지 문제점을 발굴하고, 기술을 전수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 폭넓은 삶의 기회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2022년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총 3박 4일 진행된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현지연수 역시 지난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독려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연수 강의는 캄보디아 현지 사정에 맞춰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준비됐다. 한국의 새마을운동, 보건위생과 질병예방, 시범마을 관리, 새마을지도자의 역할과 현장활동, 마을환경개선, 새마을 단체 및 위원회 설립 등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교육을 통해 보다 현장감 넘치는 연수를 진행했다. 프레이 로미트 마을의 주민 용포 씨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제공한 모든 강의가 유익했다. 연수를 마치고 나니 우리 마을을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새마을정신과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잘 사는 마을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캄보디아 현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연수 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된 만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 강의뿐만 아니라 현장견학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보다 현지 실정에 도움이 되는 강연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녹색 희망의 열차가,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동행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가기를 바라본다. ➡



탄소발자국 줄이기 우리 모두 함께해요!

친환경 라이프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슈이며 이와 관련한 운동이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 '탄소발자국 줄이기' 등 수없이 듣고 또 외쳤지만 정작 무엇부터 해야 할지 또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던 이들을 위해 이번 호에서는 탄소발자국과 우리 삶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한다.

write. 신지선



탄소발자국은 뭘까?

탄소발자국은 개인이나 기업, 국가 등이 활동하거나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2006년 영국의회 과학기술처(POST)에서 최초로 제안됐다. 작게는 개인이 일상에서 불을 켜고 끄는 행위부터 크게는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이나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보기 쉽게 탄소발자국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유래됐다. 탄소발자국의 표시는 무게 단위인 kg 또는 실제 광합성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나무의 수로 환산하여 표시한다. 국내에서도 2009년부터 제품의 제작 과정부터 유통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가치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필요한 포장을 자제하거나 제품 포장지에 사용되는 잉크양을 줄인다거나 무라벨 제품 출시 등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

아침에 일어나 물을 켜 후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마시며 잠을 깬다. 출근 전 허기를 달래기 위해 간단하게 빵을 데워 먹고 씻는다.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며 분주한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자가용을 이용해 회사로 출근한다. 탄소발자국은 이처럼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다. 연료, 물건, 식품 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중이나 버려질 때까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발생한 탄소를 무게 단위인 kg로 표기하여 이를 상쇄하기 위해 우리가 심어야 하는 나무 그루 수로 표기한 것이 바로 탄소발자국이다. 자신이 하루 동안 발생시키는 탄소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탄소발자국 계산기'(https://www.kcen.kr/tanso/intro.green) 사이트를 방문해보자. 출퇴근할 때 자가용을 이용해 왕복 30km를 이동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겼지만, 이렇게 이동하는 사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은 3.9kg에 달하며, 이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소나무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선 구입한 물건을 최대한 아껴 쓰고 끝까지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잘 버려야한다.

0.9 그루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체감될 것이다. 특히 내가 생활 속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전기, 가스, 수도, 교통의 카테고리로 나눠 쉽게 알 수 있으며,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해 우리 집 탄소 가계부 프로그램을 사용해볼 수도 있다.

음식물 쓰레기와 과식을 줄이자

생산 과정에서부터 수송, 유통, 소비까지의 과정을 감안할 때 우리가 생수 1병을 마실 때 10.6g, 아메리카노 한 잔은 21g, 카페라테는 340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게다가 먹다 남긴 음식물이 분해될 때 이산화탄소보다 더 무서운 메탄을 방출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방출량은 훨씬 적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보다 34배 높다. 메탄이 지구 온도를 훨씬 더 많이 올리는 데다 열을 가둬두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음식이나 음료를 구입하는 것, 먹는 것, 먹고 버려지는 것 등 모든 것에서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하지만,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일은 생각만큼 복잡하진 않다. 마트에서 혹은 인터넷으로 장을 보기 전 냉장고를 구석구석 살펴서 필요한 식자재만 구입하고, 배달 후 남은 음식을 활용해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소비하거나 식당에서는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 오는 것 모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일이 된다. 또 하루에 몇 잔씩 습관처럼 사 마시던 음료를 줄이는 것 역시 탄소 발자국 줄이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로컬 푸드 이용하기

페루에서 온 아보카도나 노르웨이에서 온 고등어 등 우리 식탁은 국경을 넘나든 지 오래다. 딸기를 봄이 아닌 겨울부터 즐길 수 있으며 심지어 사시사철 수박을 맛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국경과 계절을 넘나드는 식재료를 구할 수 있고 또 그 식재료를 만든 음식을 자유로이 즐겼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문제에 대해 인식해야 할 지금이다.

페루 아보카도나 노르웨이 고등어가 환경과 무슨 상관이나 싶겠지만 이는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와 연관 있다. 푸드 마일리지는 식품이 생산되고 식탁에 오를 때까지의 이동 거리를 뜻한다. 이 개념에는 식품 수송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식품의 이동 거리가 멀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배출량은 증가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살고 있는 지역 곳곳에서나 혹은 마트에서 '로컬 푸드(Local Food)'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로컬 푸드는 중간 유통 단계나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는 농산물을 뜻하며 보통 반경 50km 내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예전에는 유통 과정이 짧아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엔 로컬 푸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장거리 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중요한 실천 수단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필요한 포장을 줄일 수 있고, 운반 과정에서 부패하거나 파손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환경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 '신선한 식품'이라는 가치 외에 탄소중립이라는 유의미한 가치가 큰 로컬 푸드, 기왕이면 지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를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장난감이나 아이들이 쓰다 만 크레파스 등은 쉽게 구입하는 동시에 쉽게 버려지는 물건이기도 하다. 힘 조절이 미숙해 툭툭 부러진 크레파스나 색연필은 재사용이 어려울뿐더러 이리저리 굴리며 놀던 장난감은 어딘가 고장 나도 AS 자체가 불편한 것이 현실이다.

환경을 위한다며 구입한 에코백이나 텀블러도 마찬가지다. 에코백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발생한 환경오염을 상쇄하려면 에코백을 무려 7,100번 써야 하지만 유행에 따라 혹은 오염에 따라 사용횟수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버려지기 때문이다.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선 구입한 물건을 최대한 아껴 쓰고 끝까지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잘 버려야 한다.

비영리 민간단체 옮김은 '누군가에겐 버림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옮김'이라는 생각으로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자원을 새롭게 재탄생시키고, 필요한 곳으로 옮겨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하루 평균 호텔에서 한두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약 32,000여 개의 비누, 아이들이 크면서 방치되는 크레파스, 회사 등에서 버려지는 이면지 등에 주목한다. 이들은 비누, 크레파스, 이면지 등을 재가공하여 새 비누와 새 크레파스, 그리고 공책으로 재탄생시켜 개인이나 단체,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필요한 이들에게 물품을 나누고 있다.

코끼리 공장은 장난감을 수리하고 나누는 장난감 전문 자원 순환 사회적 기업이다. 쉽게 버려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난감을 수리하는 '장난감수리단'으로 출발한 이곳은 소비 사이클이 짧은 장난감을 순환시킴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탄생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에게 장난감을

선물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집에서 더 이상 놀지 않는 장난감을 코끼리 공장의 새로운 장난감과 교환할 수도 있고 고장 난 장난감을 기부하면 소재별로 분해하여 정크아트로 제작하거나 새로운 물건 또는 장난감으로 재탄생된다. 집에 방치된 장난감을 모아보고 기부를 통해 아이들과 자원 순환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 🌱

- 1 세제를 리필할 수 있는 리필 숍
- 2 기부한 장난감은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거나 공정을 거쳐 새로운 쓸모를 얻는다.

일상 속 탄소 중립 생활 Check List

- 전등은 바로바로 끄기
- 백열등은 LED등으로 교체하기
-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하기
- 세탁물은 한 번에 모아 세탁하기
-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기
- 저탄소 라벨이 있는 제품 구입하기
- 식재료는 로컬 푸드를 이용하기
- 음식 남기지 않기
- 고기 먹는 횟수 줄이기
-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 양치할 때 양치컵 사용하고 샤워 시간 줄이기
-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 탄소발자국이 큰 스프레이 제품 사용하지 않기
- 세제, 세안 용품은 리필 숍 이용하기

중앙회 소식



1. 2023 임직원 윤리강령 선포식 (2.1.)

중앙회는 지난 2월 1일 제3강의실에서 임직원, 18개 시도 사무처장과 사무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임직원 윤리강령 선포식'을 개최했다.

곽대훈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직원의 복무자세로, 적극적인 상호소통과 협력관계 구축, 주도면밀한 일처리, 사후평가와 반성(피드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포식은 윤리강령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의지를 담아 모든 참석자들이 '윤리강령 서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마무리했다.

2. 2023년도 회원단체 및 중앙회 정기총회 (2.7.~2.15., 2.28.)

중앙회는 지난 2월 7일부터 15일까지 '2023년도 회원단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각 단계별 지난해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 등 의결사항을 논의했다.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회장 김종복)는 9일,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회장 조승희)는 7일 중앙연수원 제3강의실에서 2023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 전문수)는 15일 중앙회 회의실, 새마을문고중앙회(회장 박경수)는 14일 중앙연수원 제4강의실에서 2023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편, 중앙회도 지난 2월 28일 중앙회 대강당에서 '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이어,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3년도 기본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정관 일부 개정, 임원 선임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곽대훈 중앙회장은 이날 취임 5개월에 즈음한 소회와 현안을 설명하고, 나라 안팎의 위기 극복과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3. 2517기 새마을지도자 기본과정 1차 (2023.3.7.~3.9.)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9일까지 2023년도 첫 새마을교육을 시작했다.

제2517기 '새마을지도자 기본과정 1차 교육'은 경기, 강원, 경북, 충북 지역 지도자가 입교해 2박3일간 새마을교육을 받았다. 올해 새마을교육은 기본과정, 주말과정, 특별과정 및 온라인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총 31회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체 5,305명의 지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4. 튀르키예·시리아 피해복구성금 전달 (3.16.)

중앙회는 지난 3월 16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찾아 지진 피해를 위로하고, 구호 성금 3억 6,000여만 원을 전달했다.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했으며, 전국 239개 시도·시군구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3억6,000여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회노동조합(위원장 한승전)도 지난 2월 17일 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400만 원을 전달했다.



5.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메타버스 전시

중앙회는 3월말부터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내 '새마을운동 역사관 및 청소년교육장'에서 새마을운동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품들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접근성이 용이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새마을운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MZ세대를 겨냥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공모전에 출품된 신선하고 다양한 수상작 총 11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6. 새마을협력관 초청연수 (3.20.~3.24.)

중앙회는 지난 3월 20일 중앙연수원에서 '2023 지구촌새마을운동 새마을협력관 초청교육' 입교식을 가졌다. 새마을협력관은 총 13개국 17명이 활동중에 있으며, 이번 교육은 10개국 13명의 협력관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2023년 지구촌새마을운동 중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새마을협력관의 새마을운동 이해 증진 및 현지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0개국 13명의 새마을협력관들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경험과 새마을운동 성공사례를 배우고, 협력관의 역할, 사업집행 정산 및 관리, 새마을현장교육 진행 매뉴얼 등의 이론 교육과 각 국의 새마을운동 적용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시·도 소식

광주

광주광역시새마을회(회장 류재선)는 지난 3월 16일 제17대 회장에 류재선 금강전력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류 회장은 지난 14일 시새마을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3 광주광역시새마을회 임시총회'에서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17대 회장에 추대됐다.신임 류 회장은 한국전기신문사 사장,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장, 한국전기공사협회 26·27대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주식회사 금강전력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울산

울산광역시새마을회(회장 정대식)는 지난 2월 15일 시새마을회관에서 '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사업 실적, 2022회계년도 결산심의, 그리고 2023년도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했다. 홍보 콘텐츠 내실화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강화, 깨끗하고 투명한 또한 조직문화 구현에 울산시 새마을지도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충남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이경용)는 지난 2월 13일 도새마을회 회의실에서 도·시군새마을회 임원 등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주요사업 실적을 보고하고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023년도 기본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확정했다. 2023년도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문화 조성·탄소중립 실천 연대강화·새마을운동의 세계적 확산·새마을운동 추진역량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세부실천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

전라북도새마을회(회장 구자강)는 2월 16일 고궁담 연회장에서 '2023년 전북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구자강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 본격적인 새마을운동 추진과 함께, 2024년 시작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준비하는 올 한 해가 되자"라는 각오를 다졌다.

경북

경상북도새마을회(회장 이종평)는 지난 1월 26일 경주시 감포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경북도·시·군 회장 회의 및 중앙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면 주요사안에 대한 논의와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경북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토의했다.

경남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안화영)는 지난 2월 22일 함안군 가야어울림센터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2022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2022 결산(안) 심의·의결에 이어 2023년도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도새마을회는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라는 목표 아래 중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도 소식

서울 | 지구촌 협력사업 라오스 새마을회관 준공식

서울시협의회(회장 우종호)와 부녀회(회장 조동희)는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 까지 라오스 팜마을 새마을회관 준공식에 참가했다. 참석한 회원들은 팜마을 초등학교 학생에게 새마을 티셔츠 및 학용품도 함께 전달하며 새마을정신을 전파했다.



부산 | 새마을교통봉사대부산시지역대 창립발대식

새마을교통봉사대부산시지역대(대장 김요한)는 지난 3월 2일 새마을회 강당에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자율질서 의식확립을 위한 '새마을교통봉사대부산시지역대 창립발대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2030세계박람회' 개최염원을 담아 부산의 선진교통질서 만들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대구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와 업무협약

새마을문고대구시지부(회장 이승로)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회장 박영석)는 2월 23일 2·28 민주운동기념관에서 '나라사랑 대구정신 이어가기 2·28 민주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새마을문고는 국제보상운동, 3·1독립운동, 2·28민주운동,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들과 함께 대구정신이 깃든 현장투어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 |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선언

인천시새마을회(회장 김의식)는 지난 3월 6일 인천시청 애플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서 김의식 회장은 "1902년 12월 22일 국민 121명이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한 것이 공식 이민의 시작이다"라며 "인천은 근대 이민사의 출발지라는 상징성이 있다.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유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전 | 중증장애인 시설에 성금품 전달

직장·공장 대전시협의회(회장 박영복)는 지난 3월 24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하림의 집'을 방문해 그동안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온 100만 원 상당의 성금품을 전달했다. 직장·공장 대전시협의회는 매년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봉사활동과 성금품 전달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세종 | 실무자 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세종시새마을회(회장 김영제)는 지난 2월 15일 새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읍면동 회장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읍면동 실무자 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실무자교육은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위한 보조금 정산요령,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일지 작성요령, SNS를 통한 새마을운동 홍보, 1365 자원봉사활동 참여 방법 등의 행정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경기 | 라오스 새마을협력사업 현지답사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송재필)는 지난 3월 6일부터 11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라오스 새마을협력사업 현지답사를 다녀왔다. 답사단은 라오스 농림부를 비롯한 한-라오스 농촌개발 교육센터, 나사이통구청, 후이싸 초등학교 방문과 새마을사업장에 대한 사전현장조사 등을 진행했다. 도새마을회는 오는 7월 대학생해외봉사단과 함께 현지 새마을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 올림픽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간담회 참석

강원도새마을회(회장 박형배)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강원도민 추진위원회와 스포츠인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철규 국회의원 초청, 올림픽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단 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화된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의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공유하고 IOC와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올해 상반기 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심사 통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북 | 충청북도협의회, 우태근 신임회장 선출

충청북도협의회(회장 우태근)는 지난 2월 8일 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2023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으로 우태근 회장을 만장일치 추대 선출했다. 우태근 회장은 2012년 칠성면협의회새마을지도자 및 협의회장을 시작으로, 2019년 2월 새마을지도자괴산군협의회장, 2021년 괴산군새마을회장을 역임했다.



전남 | 베트남 장애인재활교육원에 생필품 전달

전라남도협의회(회장 박창덕)는 지난 2월 16일 베트남 나트랑에 있는 장애인재활교육원을 방문해 김, 라면,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로션, 햄, 참치캔, 수건, 과자류 등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시도 및 시군구협의회장단의 연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묵묵히 지역사회발전과 새마을운동을 이끌어 오신 시군구협의회장단의 노고를 위로하는 워크숍을 병행했다.



제주 | 2040 플라스틱 제로섬 만들기 운동 선포식

제주도새마을회(회장 이기창)는 지난 2월 27일 제주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2040 플라스틱 제로섬 만들기 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새마을지도자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40 플라스틱 제로섬 만들기 선언문 채택 및 오영훈 지사의 특별강연 등이 진행됐다.



이북5도 | 세검정새마을금고 업무협약 체결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지난 2월 24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 소회의실에서 '이북5도새마을회-세검정새마을금고 업무협약'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양 기관은 내고향 재건을 위한 통일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 협력 지원과 탄소중립 실천 시민교육과 실천 확산을 위한 사업, 국내외 새마을운동 봉사활동 관련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지원을 약속했다.



현장은 지금

공동체 문화 조성

- 서울 동대문구부녀회(회장 신미숙)는 지난 2월 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외대역 광장에서 민속행사 한마당을 진행했다.
- 문교 서울 강북구지부(회장 이승철)는 지난 2월 17일 수유2동 주민센터에서 '2023겨울, 신나는 방학 가보고 싶은 교실'을 개최했다.



- 서울 강북구 송천동부녀회(회장 오민영)는 지난 2월 1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관내 30가구의 홀몸 어르신께 계란과 김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 인천 동구새마을회(회장 김민철)는 지난 2월 25일 행복주민센터 대강당에서 '2023 동구 새마을가족 한마당 어울림마당'을 열었다.
- 인천 미추홀구부녀회(회장 강화옥)는 지난 2월 20일 새마을회관에서 어려운 이웃과 홀몸 어르신 등 260가구에 '사랑의 밑반찬 나눔'을 가졌다.



- 인천 연수구 연수2동부녀회(회장 한재분)는 지난 2월 13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어르신 90여 명의 급식활동을 진행했다.
- 인천 남동구새마을회(회장 신대현)는 지난 2월 28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200만 원을 구청에 기탁했다.
- 인천 부평구 부개1동부녀회(회장 주영숙)는 지난 2월 24일 행정복지센터 동아리방에서 관내 홀몸 어르신을 모시고 떡국 나눔을 진행했다.
- 인천 서구 가좌3동부녀회(회장 박순심)는 지난 2월 23일 관내 홀몸 어르신 가정을 찾아 대청소를 진행했다.



- 인천 강화군 강화협의회(회장 신봉기)와 부녀회(회장 김은숙)는 지난 2월 14일 새마을회관에서 관내 소외계층 및 저소득 50가구를 돕고자 사랑의 밑반찬 나눔을 진행했다.
- 문교 강원 춘천시지부(회장 이희순)는 지난 3월 20일 춘천 북부 노인복지관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EM(유용미생물군) 주방비누를 전달했다.



- 강원 원주시 일산동부녀회(회장 조경애)는 지난 3월 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만든 호박죽, 부침개 등을 관내 홀몸 어르신 가정에 전달하고, 목욕 이용권도 지원했다.
- 강원 속초시 동명동협의회(회장 윤길영)와 부녀회(회장 김연자)는 지난 2월 12일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이·미용 활동과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마스크 500개와 손세정제 1상자를 나눔했다.
- 강원 삼천시 근덕면부녀회(회장 홍경희)와 남양동부녀회(회장 김정수)는 2월 27일 합동으로 관내 노인복지관에서 급식 지원을 실시했다.
- 강원 횡성군 갑천면부녀회(회장 허정자)는 지난 2월 20일 종합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르신 85명에게 송편과 물김치를 전달했다.
- 강원 철원군새마을회(회장 정연권)는 지난 3월 3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와 이재민 돕기 성금 1,028만 원을 중앙회에 지정 기탁했다.
- 강원 화천군새마을회(회장 나병학)는 지난 3월 2일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300만 원을 구청에 기탁했다.
- 강원 양구군 해안면부녀회(회장 이은숙)는 지난 2월 24일 양록

서울 · 인천 · 강원

- 장학금과 이웃돕기 성금 각각 100만 원씩을 구청에 기탁했다.
- 강원 인제군 인제읍부녀회(회장 장희주)는 지난 3월 2일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층 60가구에 반찬 나눔을 실시했다.



- 강원 인제군 상남면부녀회(회장 전점순)는 지난 2월 26일 관내 일원에서 김치를 담가 저소득층 15가구에 전달했다.
- 강원 고성군 토성면부녀회(회장 최금순)는 지난 2월 2~3일까지 이틀간 복지회관에서 오곡밥과 삼색 나물을 만들어 관내 저소득층 및 홀몸 어르신 350가구에 전달했다.

탄소중립 실천

- 서울 영등포구 당산2동협의회(회장 유대상)는 지난 2월 23일 관내 일원에서 빗물받이 청소 등 새마을 대청소를 실시했다.
- 인천 남동구새마을회(회장 신대현)는 지난 2월 27일 아이스팩 모으기 운동으로 각 동에서 수거한 재활용 아이스팩 1,500개를 구청에 기탁했다.
- 인천 남동구 논현1동협의회(회장 김진관)는 지난 2월 12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폐현수막 수거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 인천 강화군 길상면부녀회(회장 오경숙)는 지난 2월 27일 새마을 줍깅데이를 맞아 온수천 일원에 방치된 대형 폐기물과 쓰레기 약 3톤을 수거했다.



- 강원 원주시 흥업면협의회(회장 이종우)와 부녀회(회장 임병희)는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겨울철 방치된 농업용 폐비닐

- 42톤을 수거했다.
- 강원 속초시협의회(회장 김창환)는 지난 1월 29일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과 재활용을 위해 관내 수거함 17개에 모인 아이스팩과 폐건전지를 수거했다.
- 강원 삼척시 성내동부녀회(회장 이영자)는 지난 2월 24일 폐페트병과 캔 등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6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복지센터에 기탁했다.
- 강원 인제군 북면협의회(회장 박문실)와 부녀회(회장 정옥수)는 지난 3월 4일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 강원 인제군새마을회(회장 조남웅)는 지난 2월 13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내린천 및 빙어마을 일대를 청소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태극기 달기

- 서울 양천구 신정2동협의회(회장 황선희)와 부녀회(회장 유의순)는 지난 2월 28일 3·1절을 기념해 목동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캠페인을 펼쳤다.
-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협의회(회장 강영복)는 지난 3월 1일 탑골공원 입구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을 진행했다.



- 인천 남동구 간석3동협의회(회장 김봉호)는 지난 2월 28일 3·1절을 맞아 관내 주요 도로변 1.5km구간에 태극기를 게양했다.
- 강원 횡성군새마을회(회장 김은영)는 지난 3월 1일 군민건강달리기대회장에서 참가자들에게 태극기 게양 서명운동을 펼쳤다.

부산 · 대구 · 울산 · 경기 · 세종 · 제주 · 이북5도

공동체 문화 조성

- 부산 중구새마을회(회장 이형목)는 지난 2월 27일 관내 청소년 복지시설과 홀몸 어르신 등 100가구에 사랑의 쌀 100포대를 전달했다.
- 문고 부산 수영구 광안4동분회(회장 김민지)는 지난 2월 21일과 22일 양일간 호암 초등학교 입학 축하선물로 학용품꾸러미 100개를 준비해 대상 어린이 가정에 전달했다.



- 부산 북구 구포3동부녀회(회장 최순악)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복지사각지대 이웃들의 빨래를 수거해 세탁, 건조 후 다시 가정에 배달해주는 세탁 지원 사업을 매주 수요일마다 실시하고 있다.
- 부산 금정구부녀회(회장 김선희)는 지난 2월 14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유 쿠폰(100만 원 상당)을 구청에 전달했다.
- 부산 강서구부녀회(회장 정경자)는 지난 2월 14일 구청 광장에서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사랑의 된장 담그기 사업을 전개하고, 관내 복지사각지대 300세대에 전달했다.
- 대구 남구 이천동협의회(회장 김명수)와 부녀회(회장 박분자), 대명11동부녀회(회장 곽숙자)는 지난 2월 15일과 16일에 각각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 식사준비와 배식, 설거지 등 급식 활동을 실시했다.



- 울산 중구협의회(회장 정수용)는 지난 2월 27일 관내 푸드뱅크에 밀반찬 80개(40만 원 상당)를 지원했다.
- 경기 광주시지회(회장 박광성)는 지난 3월 7일 '찾아가는 사랑의 빨간 밥차' 사업을 추진해 관내 홀몸 어르신 104세대에 밀반찬을 전달했다.

- 경기 오산시부녀회(회장 홍영숙)는 지난 2월 17일 새마을회관에서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전통 된장 만들기 사업을 통해 전통 음식문화를 알리고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 경기 안성시 서운면부녀회(회장 권영자)는 지난 2월 2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막국수, 햄 등 식료품과 빨랫비누 등을 담은 꾸러미를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80세대에 전달했다.
- 경기 연천군 전곡읍부녀회(회장 장분례)는 지난 2월 24일 관내 취약계층 가정을 찾아 생활폐기물 정리와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
- 경기 동두천지회(회장 윤광희)는 지난 2월 25일 관내 8개동별 취약계층 1가구씩 선정해 총 2,000장의 연탄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 세종 전의면협의회(회장 홍순상)와 부녀회(회장 김홍순)는 지난 3월 3일 관내 홀몸 어르신 가정을 찾아 집안 정리와 대청소를 실시했다.
- 제주 서귀포시 영천동부녀회(회장 유진희)는 지난 2월 27일 토평동다목적회관에서 관내 시민들을 위한 봄맞이 알뜰나눔터를 운영했다.

탄소중립 및 환경정화

- 부산 영도구 동삼1동협의회(회장 강동울)와 부녀회(회장 정미숙)는 지난 3월 3일 중리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 부산 동래구부녀회(회장 배말자)는 지난 2월 28일 안락로터리

부산 · 대구 · 울산 · 경기 · 세종 · 제주 · 이북5도

앞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충렬사 일원에서 쓰레기 줍기 활동도 실시했다.

- 대구 동구 효목1동부녀회(회장 송미숙)는 지난 2월 20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각 가정에서 수거한 투명 페트병을 모아 라벨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 대구 서구 평리4동협의회(회장 권상범)와 부녀회(회장 김연화)는 지난 2월 28일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한 페이이스팩을 세척하고 분류했다.
- 대구 달서구 죽전동협의회(회장 추동호)와 부녀회(회장 김선희)는 지난 3월 6일 관내 원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새봄맞이 새마을대청소를 실시했다.
- 울산 북구 효문동부녀회(회장 이선희)는 지난 3월 6일 연암전에서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하천정화활동을 벌였다.
- 경기 포천시 가산면부녀회(회장 김성예)는 지난 3월 6일 자원재활용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이불, 신발 등을 수거 · 판매했다.
- 경기 여주시 점동면협의회(회장 신현배)와 부녀회(회장 김금옥)는 지난 3월 6일 관내 기관단체회원들과 함께 행정복지센터 일대와 관내 도로변, 교차로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목을 제거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 세종 부강면협의회(회장 원광희)와 부녀회(회장 송미자)는 지난 3월 4일 관내 새마을창고에서 마을별로 수거해온 폐비닐을 정리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 제주 서귀포시 대천동부녀회(회장 박원희)는 지난 2월 26일 큰사슴이오름에서 새마을 줍기 활동을 펼쳐 건강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 제주 제주시 한림읍부녀회(회장 양정금)는 지난 2월 24일 원활한 자원순환을 위해 각 동에서 수거한 공병, 캔,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등을 분류 · 정리하고 판매했다.



태극기 달기

- 부산 서구새마을회(회장 박성열)는 지난 3월 1일 3·1절 104주년을 맞아 구덕운동장 일원에서 '제2회 서구와 함께하는 3·1운동 기념식'을 주관하고, 기념공연과 '서구민 선언문' 낭독, 만세운동 퍼레이드 등을 펼쳤다.
- 대구 북구 산격2동협의회(회장 사공용)와 부녀회(회장 유영생)는 지난 2월 28일 관내 일원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3·1절 태극기 달기를 독려했다.
- 대구 수성구 만천1동부녀회(회장 김천순)는 지난 2월 22일 화랑공원에서 3·1절 맞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 울산 북구 농소1동협의회(회장 이백준)와 부녀회(회장 김명자)는 지난 2월 24일 호계동 일원에서 3·1절 맞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쳤다.



- 경기 구리시 수택2동협의회(회장 이상춘)는 지난 2월 27일 애국선열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 110기를 게양해 관내 태극기 거리를 조성했다.
- 세종 조치원읍협의회(회장 김영철)와 부녀회(회장 김순화)는 지난 3월 1일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관내 군집기 시설에 태극기를 교체 · 게양했다.

대전 · 광주 · 충북 · 충남 · 경북

공동체 문화 조성

- 대전 서구 둔산3동부녀회(회장 신미경)는 지난 2월 2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가정 축하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 대전 유성구 온천2동협의회(회장 오영환)와 부녀회(회장 유미숙)는 지난 2월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사1묘역 가꾸기' 결연 묘역에서 시든 꽃 수거와 묘역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광주 북구새마을회(회장 장영희)는 지난 2월 8일 우산동부녀회 사무실에서 기증받은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설교복나눔장터를 개장했다. 운암2동부녀회(회장 김일레)는 지난 2월 17일 관내 30여 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이·미용 활동을 전개했다.
- 광주 남구 사직동협의회(회장 이수원)와 부녀회(회장 조성숙)는 지난 3월 1일 관내에서 3.1절 맞이 태극기 달기 거리 홍보 캠페인과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했다. 주월2동부녀회(회장 조경옥)는 지난 3월 7일 홀몸 어르신택을 찾아 말벗을 해드리고 생필품도 전달했다.



- 충북 음성군 대소면협의회(회장 김영찬)와 부녀회(회장 안교분)는 지난 3월 5일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화장지 90묶음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 충북 단양군새마을회(회장 오수원)는 지난 2월 15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전문 강사로부터 응급상황 시 올바른 대처방법과 심폐소생술 이론과 실습 등 골든타임 4분 안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응급 조치요령을 교육받았다.

- 충남 당진시지회(회장 한민섭)는 지난 3월 3일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시의원, 읍·면·동장을 비롯한 남녀지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2023년 우리마을사랑운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 충남 부여군부녀회(회장 이창순)는 지난 2월 28일 읍사무소 앞 광장에서 16개 읍면 지도자들이 경작한 농산물을 이용한 두부, 청국장, 들기름 등 건강한 먹을거리를 직거래 판매하는 나눔 장터를 운영했다.



- 충남 예산군 고덕면협의회(회장 최영석)와 부녀회(회장 최혜숙)는 지난 2월 23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태어날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선물을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충남 홍성군새마을회(회장 이병환)는 지난 3월 2일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광천읍과 노인회, 주민자치회와 함께 기념식에 참석 후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던 광천시장까지 만세행진을 했다.



- 경북 의성군 점곡면부녀회(회장 이종녀)는 지난 3월 2일 동변 2리 경로당에서 관내 어르신 5명을 초청해 생신상을 대접했다.
- 경북 청도군 청도읍협의회(회장 김영문)와 부녀회(회장 박필도), 문고(회장 최성배)는 지난 2월 23일 군청에 노인복지기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 경북 울진군 기성면부녀회(회장 최순희)는 지난 2월 11일 복지회관에서 관내 어르신들께 떡국을 대접했다.
- 경북 칠곡군 북삼읍부녀회(회장 하철순)는 지난 2월 10일 사랑의 집에서 급식봉사를 실시했다.

대전 · 광주 · 충북 · 충남 · 경북

탄소중립 실천

- 대전 유성구 온천2동협의회(회장 오영환)와 부녀회(회장 유미숙)는 지난 2월 24일 전통시장 주변에서 '일회용품최소화하기', '물 절약하기' 등 지구를 살리는 생활 속 저탄소 실천운동 캠페인을 펼치며 다화용 시장바구니 300개를 전달했다. 노은1동부녀회(회장 박용자)는 지난 3월 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버려진 아이스팩 640개를 수거해 세척 후 소독·건조 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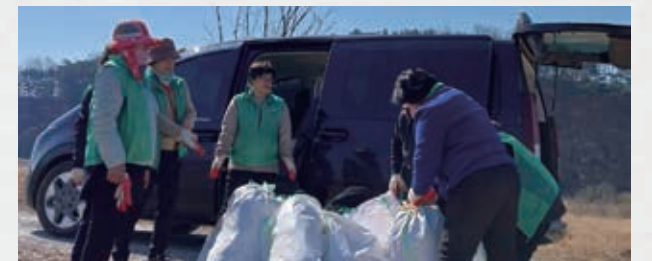
- 광주 남구 월산4동협의회(회장 송병운)는 지난 2월 1일 관내 24개 설치된 수거함에서 아이스팩 1,500kg, 폐건전지 5,000개를 수거했다. 방림1동부녀회(회장 문숙희)는 지난 2월 18일 관내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해 분리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 충북 영동군 용화면협의회(회장 이성환)와 부녀회(회장 정구숙)는 지난 3월 9일 황지리 하천주변에서 새봄맞이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용산면협의회(회장 권용하)와 부녀회(회장 김삼희)도 지난 2월 28일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폐농약병 수거 분리작업을 펼쳤다.
- 충북 음성군 소이면협의회(회장 이연홍)와 부녀회(회장 유은자)는 지난 2월 24일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체육회, 지역발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의용소방대 회원 등 80여 명과 제104주년 3·1절 행사 준비를 위해 3·1공원과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 정화활동을 전개했다.
- 충남 서천군 마산면협의회(회장 박원희)와 부녀회(회장 한부월)는 지난 3월 6일 관내 영농폐기물처리장에서 영농폐비닐, 농약병, 플라스틱, 폐지 등을 분리·수거했다.



- 충남 청양군지회(회장 임천식)는 지난 3월 6일 비봉면과 화성면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천연세제 만들기를 시작했다.
- 충남 예산군 대흥면협의회(회장 소문영)와 부녀회(회장 고정순)는 지난 2월 24일 면소재지 및 동서리·상중리 소하천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했다.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협의회(회장 박무건)와 부녀회(회장 김면숙)는 지난 2월 27일 관내 26개리에서 수거한 폐농약병,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등 3톤 정도를 분리해 영농폐비닐집하장 내 재활용품 수집 보관창고에 적재했다. 성산면협의회(회장 이인곤)와 부녀회(회장 임순자)는 지난 3월 7일 어곡리 새마을 재활용품 집하장에서 수거된 5톤가량의 비료포대, 폐농약병, 영양제병 등을 분리작업을 실시했다.



- 경북 청송군 부남면 하속2리부녀회(회장 윤덕순)는 지난 3월 1일 새봄맞이 자연정화활동 대청소를 실시해 쾌적한 마을조성에 앞장섰다.
- 경북 성주군 선남면협의회(회장 석춘식)는 지난 2월 22일 관내 버스승강장 17개소를 돌며 승강장 주변에 쌓인 쓰레기를 줍고 벽면에 부착된 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실시했다. 초전면협의회(회장 한형우)와 부녀회(회장 허복순)는 지난 2월 12~13일 '숨은 자원 모으기'를 실시해 방치된 각종 농약병, 영양제병 등을 분리수거하며 깨끗한 초전면 만들기에 일조했다.
- 경북 예천군 용궁면협의회(회장 이승희)와 부녀회(회장 권아주)는 지난 2월 27일 관내 클린예천 만들기 플로깅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북 · 전남 · 경남

공동체 문화 조성

• 전북 전주시 인후3동협의회(회장 황승일)는 지난 3월 2일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 5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참고서를 전달했다. 송천1동부녀회(회장 김수경)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준비한 음식과 간식을 전달하며 학생들의 활기찬 새 학기를 응원했다.



• 전북 남원시 도동동부녀회(회장 장승자)는 지난 2월 23일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돕기 위한 성금 200만 원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 전북 무주군지회(회장 문기득)는 부녀회(회장 이순희)와 함께 지난 2월 27일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전달할 지진피해 성금 100만 원을 무주군에 기탁했다.

• 전북 고창군지회(회장 오균호)는 지난 3월 6일 튀르키예·시리아 이재민 구호와 복구지원을 위해 고창군에 성금 150만 원을 기부했다.

• 전북 부안군부녀회(회장 임복순)는 지난 2월 28일 부안군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활성화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관내 취약계층의 대형 빨랫감 세탁 지원을 위해 도입된 세탁전담차량 '뽕송이' 운영을 위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 전남 여수시 미평동부녀회(회장 임혜정)는 지난 2월 7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을 위한 중식 제공 활동을 펼쳤다.

• 전남 담양군 고서면부녀회(회장 추경자)는 지난 2월 7일 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560만 원을 기탁했다.

• 전남 장흥군 장흥읍부녀회(회장 송애자)는 지난 2월 23일 회원들과 함께 저소득 홀몸 어르신 40가구에 나눠줄 밑반찬을 준비해 관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관산읍부녀회(회장 강해정)는 향토봉사단,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주거환경이 열악한 홀몸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와 장판 교체 및 주택 내·외부를 청소하는 민관합동 활동을 실시했다.



• 전남 해남군 문내면협의회(회장 김문재)와 부녀회(회장 정정애)는 지난 3월 3일 면사무소 광장에서 '제3회 새봄, 새 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하고, 김치 1,000포기를 각 마을 경로당과 어려운 이웃,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 전남 함평군 신광면부녀회(회장 정점숙)는 지난 2월 28일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시락 나눔' 활동을 실시하고, 직접 만든 밑반찬을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23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 전남 진도군새마을회(회장 김형섭)는 부녀회(회장 추영금)와 지난 2월 23일 거동이 불편한 관내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쓰레기 분리배출, 가구 재배치, 화장실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쳐 소외계층의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위해 힘썼다.

• 문교 전남 신안군지부(회장 이희자)는 지난 3월 7일 코로나19로 가족 면담을 못하는 관내 노인전문요양원에 떡과 과일을 전달하는 위문방문을 실시했다.

• 전남 서호면협의회(회장 유태경)는 지난 3월 13일 관내 가로기꽃이 보수 작업을 실시했다. 영암군새마을회(회장 박찬)는 지난

전북 · 전남 · 경남

3월 1일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영암공원 3·1운동 기념비 광장에서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협의회(회장 김철호)와 부녀회(회장 김임선)는 지난 2월 15일 판매사업 수익금 및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떡국떡 200kg(2kg 100상자)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 경남 남해군 이동면협의회(회장 박영호)와 부녀회(회장 박춘화)는 지난 3월 3일 새마을 휴경지(2000㎡)를 활용해 이웃돕기를 위한 '사랑의 감자심기'사업을 추진했다. 남면 덕월마을부녀회(회장 하신자)는 지난 2월 24일 마을 앞바다에서 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자연산 돌미역을 채취했다.

• 경남 하동군지회(회장 임태경)는 협의회(회장 한기식)와 부녀회(회장 이미연), 문교(회장 강남석) 남너지도자들과 지난 2월 28일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가치를 군민과 공유하고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 경남 산청군 시천면부녀회(회장 이경자)는 지난 3월 3일 시천면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 경남 합천군지회(회장 박진식)는 지난 3월 1일 제104주년 3·1절을 맞이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고, 17개 읍면에 태극기를 게양했다.

탄소중립 실천

• 전남 영광군부녀회(회장 김춘영)는 지난 2월 22~23일, 한빛원자력본부 직원들과 함께 '아나바다 운동' 나눔 장터를 열었다. 기증 받은 물품은 의류 및 신발, 가방 등 800여 점으로 4월말까지 판매하고, 수익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 경남 밀양시 무안면협의회(회장 하영주)와 부녀회(회장 김옥숙)는 지난 3월 5일 봄을 맞아 관내 가로수 주변과 산책로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줍깅데이' 활동을 펼쳤다.

• 경남 남해군 삼동면협의회(회장 한수찬)와 부녀회(회장 신우염)는 지난 3월 6일 금송바닷가 공터에서 탄소중립 및 자원 재활용 실천을 위한 '2023년 1차 재활용·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모으기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 경남 고성군 영오면협의회(회장 주재성)와 부녀회(회장 김영자)는 지난 3월 17일 관내 하천 및 도로변에 있는 생활 쓰레기를 줍는 봄맞이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 경남 거창군새마을회(회장 최두한)는 지난 2월 23일 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화학세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사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생활 속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했다. 부녀회(회장 신영애)도 같은 날 친환경 소재로 가루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을 만들어보는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새마을 통통통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1+2월호 독자 의견 당첨자

김재인

오래 전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때가 떠오릅니다. 늘 보람찬 교육이 있었어요.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던 30대 중반에 신문으로 새마을 소식을 받아보았는데, 벌써 30년이란 세월이 흘러 지금의 <새벽종>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새마을회원들의 현장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장혜숙

매번 받아보면서도 꼼꼼하게 읽진 못했는데, 이번 '함께 또 같이'를 주제로 한 <새벽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봉사라는 것이 배려와 존중, 협동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김재환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중앙회 회장님을 필두로 각 단체장님들의 새해 각오와 계획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대학새마을동아리 코너는 평소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는 듯합니다. 중앙회 회장님이 언급하신 '추진동력'을 우리 청년들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순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수기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으신 김미애님과 조민정님의 글을 통해서 탄소중립이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실천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느낀 점,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SNS 구독하고 활동소식을 빠르게 만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이웃추가

